



+ 13 e r n a r d - 2 0 2 2 3 4 5 6 7 8 9  
3대리구 본리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 제27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7주일, 군인 주일 2022. 10. 02. (다해) 제2342호

**제1독서** 하바 1,2-3; 2,2-4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 2티모 1,6-8.13-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7,5-10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25사단 비룡성당 | 오승수 미카엘 신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주인과 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과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종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분부하고 종은 주인의 분부를 받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루카 17,10)라는 구절은 종의 입장에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 ‘분부를 받은 이들의 마음가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지도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주인은 그 종을 단호하게 내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은 어디를 가든 인정받지 못한 채 잊힐 것입니다.

한편으로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실천하고 그 일을 완수하였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한다면, 그 역시 분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종은 주인에게 속하면서 ‘주인이 나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걸 보니 역시 나의 능력이 뛰어나구나.’하며 자만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주인 위에 서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는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모습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부를 받은 이들의 마음가짐’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모자란 사람 혹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느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 하느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신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에 합당한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나아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궤**

## 너는 어떤 꽃을 피울 거야?

포항사랑어린이집 특수교사 | 권은정

머리를 양 갈래로 묶은 작은 아이와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들꽃 앞에서 멈춰 섭니다. 할머니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눈을 응시하며 말합니다. “이건 민들레 꽃이야. 예쁘지? 수민(가명)이도 이렇게 예뻐.” 할머니는 수민이와 매일 아침 어린이집까지 40분이 걸리는 거리를 걸으며 마주치는 자연의 이름을 수도 없이 되풀이하며 알려 주십니다.

어린이집에서 처음 만난 5살 수민이는 웃음기 없는 얼굴에 말문을 닫은 아이였습니다. 아주 조용히 자신의 놀이를 즐기다 말없이 제게 다가와 안기는 아이는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수민이는 부모의 불화 과정을 겪으며 말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함께 살게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수민이에게 극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수민이는 매일 할머니와 함께 걸어 다니며 세상의 온갖 이름을 익혔고, 어린이집에서는 친구의 소중함과 어울림을 배워갔습니다.

일 년이 지났을 무렵 하원하던 차 안에서 수민의 첫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다” 저는 너무 놀라 아이에게 다시 한번 물었고, 그 후 수민이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자연의 이름, 어린이집에서 사귀 친구의 이름, 사물의 이름, 선생님의 이름... 꼭꼭 담아두었던 수민의 말문은 그렇게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수민이는 어린이집에서 숫자를 읽고 쓰고, 단어를 말하고 적고, 운동 또한 또래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

을 만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끔 할머니와 먹는 삼각김밥에 행복해했고, 친구와 함께하는 슬라임 놀이에 즐거워했습니다.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수민이는 나에게 큰 기쁨과 더불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친구들은 장애전담 학교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졸업한 수민이는 일반학급으로 진학해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묻습니다. “장애 아이들이 계획대로 공부한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주느냐보다, 어떤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는지에 따라 아이들은 서로 다른 꽃을 피워냅니다. 기저귀를 떼지 못할 것 같았던 아이도, 스스로 연필을 잡을 수 없었던 아이도, 소리 내기조차 어려워 보였던 아이도 느리지만 천천히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작은 씨앗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이 되어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꽃**

※ 포항시 남구 해동동에 위치한 '사랑어린이집'은 전반적 발달지체를 가진 취학 전 영유아의 교육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입니다.

<밀알회>는 대구대교구 공식 사회복지 후원회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노숙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위한 복지사업과 교구 소속 10개 법인의 100여 개 시설과 본당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기 후원자 가입 문의: 053)422-3411

## “주님께서 나를 파견하셨습니다”

(사도 9,17 참조)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 인영균 플레멘스 신부

스페인 라바날 수도원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지금은 왜관 수도원에서 베네딕도 성인의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일하며’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다. 새로운 소임인 ‘선교담당총무’ 직책을 수행하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선교 사명을 마음에 되새기고 있다.

2020년 여름 코로나19 전염병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 라바날 수도원을 출발하여 콤포스텔라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귀국을 앞두고 전염병을 뚫고 감행한 나의 두 번째 카미노였다. 콤포스텔라 시내로 들어올 때 산티아고(성 야고보) 사도가 멀고 먼 서쪽 끝 갈리시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겪었던 처절한 실패의 상황이 떠올랐다. 웬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며 뜨거운 것이 올라와 눈에서 흘러내렸다. 지난 5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던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산티아고 사도는 산티아고 대성당 ‘영광의 현관 Portico de la Gloria’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산티아고 사도 바로 위에서 못에 뚫린 두 손을 벌리시며 하늘의 영광을 내려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주님은 산티아고 성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의 라틴어 문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파견하셨습니다. Misit me Dominus”(사도 9,17 참조) 그렇다, 나는 또 다른 산티아고 사도로서 새로운 카미노로 파견되었다. 나는 지금 수많은 후원자와 함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의 가난한 지역 교회와 수도 공동체를 돕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사명의 순례길’이다. 라바날에서 나와 함께 ‘카미노 나눔’을 하였던 순례자들도 이 새로운 차원의 카미노에 동참하고 있다. 함께 사명의 길을 걷는 도반들의 협력이 있기에 힘이 더 난다. 각자의 ‘지금 여기서’ 함께 길을 걷는 수많은 선교사와 순례자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이다. **궤를**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2년

## 여학교와 수녀원을 짓다

9월 2일 월요일

여학교와 수녀원의 건축이 시작되었다. 소세 신부는 전라도로 휴가를 떠났다.

9월 3일 화요일

약간 쇠약해진 김 요셉[金紋玉] 신부가 도착했다.

9월 5일 목요일

와게 신부가 8월 14일 그의 고향에서 사망했음을 알았다.

9월 5일부터 10일까지

8일에 거행될 콩바(Combaz) 주교의 성성식 때문에 뮈텔 주교와 함께 나가사키로 여행을 했다. 우리는 아무 곳에도 들리지 않고 돌아왔다. 가는 길에 우리는 불랑제회 신부들과 함께 여행을 했고, 모지(門戶)에서는 일본 북부 지방의 주교 3명을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는 시모노세키(下關)까지 샤프롱(Chatron) 주교와 함께 동행했다. 돌아오니 분도회의 안드레아(Andreas) 신부가 와 있었다.

9월 12일 목요일

안드레아 신부가 떠났다.

9월 13일 금요일

교세 보고와 관련된 제9호 회람을 선교사 한국인 신부들에게 보냈다. 우리는 오늘 거행된 메이지(明治) 천황의 장례 의식에 학생들을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 2명의 관리가 학교로 왔다. 연설과 도쿄를 향한 경례가 있었다. 한 시간 동안 조종(弔鐘)을 울렸다.

9월 14일 토요일

소세 신부가 돌아왔다.

9월 18일 수요일

8명의 교우 벽돌공들이 장차 세워질 주교관 부지에 자리를 잡았는데, 다행히도 그곳에 벽돌용 흙이 있다. 벽돌을 구울 가마는 주교관으로 예정된 부지와 신학교 사이에 세워질 것이다.

9월 19일 목요일

성사 집행과 관련된 회람 제9-2호를 선교사들에게 발송하고, 앞으로 방문할 교우들에게는 사목서한을 보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모집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으로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2년의 과정을 마친 후 정식으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접수 : 2022. 10. 31(월) ~ 11.11(금)

인터넷 접수 : <http://cu.ac.kr>

문의 : 053)660-5111

DCU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 유스티노자유대학원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 인문학 석사 학위 과정

모집 : 2022. 10. 31(월) ~ 11.11(금)

대상 :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 무관)

강의 : (월) 야간강의, (목) 특강 6회 (남산동)

혜택 : 전원 50%(성직자·수도자 100%) 장학금

문의 : 053)660-5252~4 / 010-6563-0409

<http://dept.cu.ac.kr/user/jsfree/>

## 반려동물 축복식

2022. 10. 4. (화) 14:00~15:00

푸르실료교육관 앞 잔디광장

- 내 용 : 1. 반려동물에 대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  
2. 동물 축복식

- 주의사항 : 1. 동물 안전기구 착용  
(대형견 입마개·소형견 목줄, 배변봉투 소지)  
2. 맹견 5종 참여 불가  
3. 성모당 출입금지  
4. 성모당 앞 주차장 사용 금지

주 관 : 생태환경위원회

주제 | <한티가는길>의 풍경 및 인물 사진

기간 | 10.4(화)~14(금) 15:00까지

시상 | 대상 100만 1명, 금상 70만 1명, 은상 50만 1명,  
동상 30만 1명, 장려 10만 10명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덜 사고, 덜 쓰고, 덜 버리기 그리고 있는 것 재활용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지속적인 기도와 정성을

박성규 엘리시오



##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3일(월) 11:00 성동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3일(월) 11:00 죽도성당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3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0월 3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복음선교후원회 후원미사	10월 3일(월) 11:00 성모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8일(토) 10:00 월성성당

### 수도회 성소 | 피정

####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일시: 10.8(토) 14:00~9(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본원

문의: (010)8353-2323 (문자요망)

osb3@hanmail.net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 관심자 모임

일시: 10.9(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근처)

대상: 24~40세 신자 (해외선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상시 / 장소: 서울 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모임

일시: 상시

장소: 원하는 곳

문의: ofmkvocation@gmail.com

(010)6608-3217

#### 한Ti 가는 길(도보순례)

일시: 10.11~13 / 10.22 / 10.26~28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피정의집

참가비: 2박 3일-20만원 / 당일-3만원

문의: (054)971-0722 / (010)6791-0071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10.15~16 / 11.5~6

3박4일: 11.10~13 / 12.15~18

8박9일: 10.25~11.2 / 11.16~24

장소: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

일자: 10.18~20 / 10.24~26 / 11.18~20

연말연시피정: 12.30~23.1.2(눈꽃산행)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날짜: 10.20~22 / 10.24~26 / 11.1~3

11.15~17 / 12.2~4 / 12.31~1.2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392차 ME주말: 10.28(금)~30(일)

394차 ME주말: 11.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 입소인 모집

시설유형: 지적장애인 실버거주시설

대상: 만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으로

주간에 근로 및 재활훈련 참여 가능자

문의: 721-7090 / www.dalbo.or.kr

####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후원 모집

어려운 이웃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대구은행 069-10-003259

기부금 영수증 문의: 256-9494

### 교구 외 | 기타 알림

#### 제32회 한국가톨릭매스컴대상 공모

1. 신문, 출판 2. 영화, TV

3. 라디오, 인터넷 4.교구, 수도회 출판작

대상: 21.10.16~22.10.15 발표작품

마감: 10.15(토) / 우편, 메일 접수

문의: (02)460-7626 / www.cbck.or.kr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정맛  
백합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뢰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일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응급내과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소화기·내시경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헬스텍피아 보청기**  
HEALTHTECHPIA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무료보청기착함 ◆ 청력재활프로그램  
◆ 고성능, 최신형, 고품질 보청기  
053)961-2525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CaNa** **가나혼인잔치**  
26년 전통 | 초혼, 재혼  
전국 대표전화 1666-1077  
대구 010-8880-0464  
부산 051)817-3888 서울 02)3141-3888  
mjms.co.kr 이경용(요셉)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성만(이나시오) 신부  
1976년 10월 3일
- 윤광제(다윗) 신부  
2010년 10월 4일
- 부 Ferrand(클라우디오) 신부  
1930년 10월 5일

교구 | 대리구 알림

2022년 교구 공동체와 구역의 날

일시: 10.15(토) 10:00  
 장소: 범어대성당 대성전  
 대상: 구역장, 반장, 공동체 봉사자  
 참가 신청 마감: 10.7(금)  
 문의: 교구 사목국 복음화담당, 250-3056

10월 카나혼인강좌

일시: 10.16(일) 9:30~17:00  
 장소: 교구청 다동 대강당  
 참가비: 2인, 5만원(사전 신청) /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10.6(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217차 탈출기

일자: 10.22~23 / 10.26 / 10.29~30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 신청비: 15만원  
 대상: 탈출기 팀공부를 완료한 청년  
 신청: www.jesusclub.or.kr 청년사목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엄윤례(루치아), 이민호(베나시오)  
 서동춘(요셉)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다사성당 사무원 채용

자격: PC가능자, 가톨릭신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기한: 10.9(일)까지 / 문의: 587-730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모집

분야: 오르간, 성악, 지휘, 시편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효성초등학교 교원채용  
(1차시험 교육청위탁)

원서접수: 10.3(월)~7(금)  
 홈페이지 참조: www.dgsunmok.or.kr

39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설명회: 10.15(토) 14:00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캠프, 가족캠프  
 대학생 및 성인, 조기유학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제4회 교구장기 배드민턴 대회

일시: 10.9(일) 9:00~17:00  
 장소: 대구 수성국민체육센터



좌측 QR 코드로  
 신청 및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로딸 10월 신앙아카데미

주제: 작은 사람아, 작은 사람아  
 두 수도자가 걷은 프란치스코 순례길  
 일시: 10.15(토) 15:00~16:30  
 강사: 황인수 신부(성바로수도회)  
 신청문의: (010)6681-5185

남대영기념관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10.15(토) 10:00~17:00  
 문의: 정이사야 수녀, (010)8682-4237

마리아사제운동 10월 미사 안내

일시: 10.15(토) 10:00 삼덕성당  
 주차: 공용주차장 이용  
 문의: 평신도대표, (010)9366-9170  
 이 운동은 교구장님께서 허락하신 영성운  
 동이며, 기도모임을 체나콜로라고 합니다.

전례생활연구회 전례 공부 모임

일시: 10.10(월) 19:30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10분)  
 주제: 위령기도와 가톨릭제사(교재있음)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4기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 연구회, (010)2509-9748

**국내·해외성지순례 모집**  
 11월 독일·스위스·이태리 12일 성지순례  
 제주도·한국성지 167 성지순례 모집  
 주중·주말 매주출발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이영국 비뇨기와**  
**전립선 | 방광질환**  
**요로결석 (쇄석술)**  
 비뇨기과 전문의(원장) 이영국(안드레아)  
 T 053-629-0077  
 감삼역3번 출구 감삼스퀘어 6층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파크골프**  
 국산제 20-30% 할인·온마 수입제 초보자 무료레슨  
**전기 온수 매트 소형**  
**소금 열 좌욕기 가전**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충단지로 45 전지관 1층 2390

**안마바우처**  
**대구 전지역 대환영**  
 근골격계·신경계·자세교정  
**053)425-7695~6**  
 38년 전통 약손 이 루카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공의료기관  
**성요셉요양병원**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100m)